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 수입기업 영향
긴급 모니터링

2024. 12.



〈조사개요〉

1. 조사명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 수입기업 영향 긴급 모니터링

2. 조사목적

-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지역 수입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업계의 영향 및 애로사항 등 파악하여 대응 방안 마련 및 대정부 건의 기초 자료 활용코자 함

3. 조사대상

- 지역 주요 수입업체 30개체(사례발굴 15개체)

4. 조사방법

- 전화면담조사

5. 조사내용

-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기업 영향
- 자체 대응 방안 및 요구 사항 등

6.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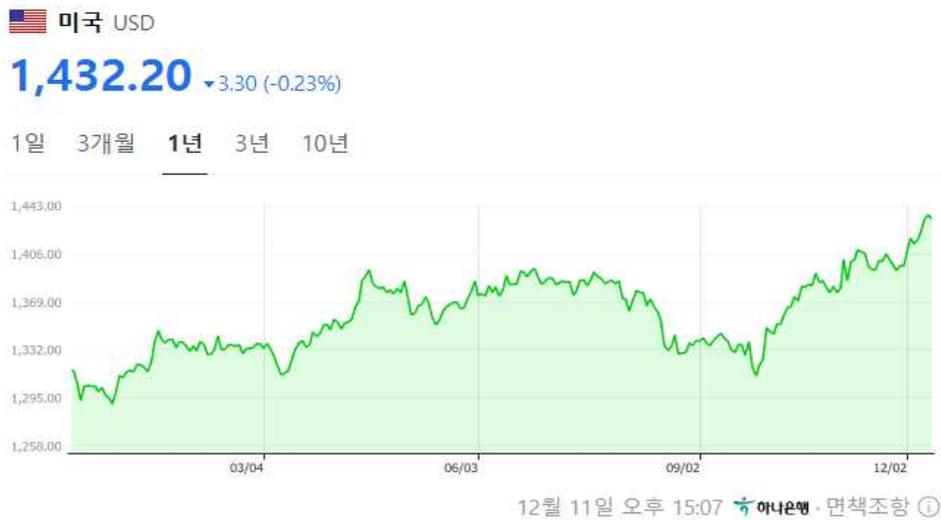
- 2024년 12월 11일 ~ 12월 12일 (2일간)

1 원-달러 환율 상승 동향

□ 최근 원-달러 환율 1430원대 돌파, 상승 추세

- 24년 10월 초 중동전쟁 불안 고조에 이어 트럼프 당선(11/6) 이후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돌파
-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3) 이후 1430원대 돌파

< 2024년 원-달러 환율 추이 >



2 지역 수입업체 영향

□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로 원가 부담 심화

- 주로 원자재 수입비중이 크고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원가 인상에 따른 이익률 감소, 손실 등의 애로 발생
- 업종별로는 철강, 식품, 가스 등의 기업 피해 다수

□ 계약구조, 경기 불황 등 원가 인상분 즉시 반영 어려움

- 중장기 계약을 통해 약정된 단가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또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기도 어려움

□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

- 다만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환헛지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있었음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속한 조치와 더불어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3 지역 수입업체 모니터링 사례

□ 철강 유통업체 A사

- 철판을 수입하여 내수로 공급하는 업체임. 수출비중은 매출액의 5%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며 주로 수입비중이 크다보니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
- 수입물량의 7~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달러로 거래함
- 국내수요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제품가격에 즉각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임
- 계약 후 두 달 뒤에 물건을 받는 구조라, 현재 올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환율 상승으로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대금의 50%정도는 환헛지를 했으나, 나머지 50%는 무방비 상태여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

□ 가스 유통업체 B사

- 동사는 에어컨 냉매 가스를 수입하여 조선소나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국내 산업용으로 납품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비용의 증가로 원가 부담이 커져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음. 거래처와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원가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 환헛지 등 기업차원의 별 다른 대응은 없어 환율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 철강 제조업체 C사

- 동사는 철강업체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 후 가공하여 내수로만 납품하는 특성상,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가 부담 크게 증가
- 환율 상승 폭을 즉각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계약 구조로 인해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 다만 선물환 거래를 통한 환율 헛지를 하고 있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임

□ 식료품 유통업체 D사

- 러시아산 수산물을 수입·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환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다만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수입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지난 환율 상승 때보다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상황임
- 일반적으로 당사는 배가 들어 올 때마다 100만불 수준의 대금 결제를 즉시 치루기 때문에 환율에 매우 민감한 상황임. 또한 환율 영향으로 수입 단가가 인상된다면 국내 소비자 공급가격 역시 그대로 반영되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당장은 수입 물량이 적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철강 유통업체 E사

- 비철금속 수입업체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 주강업체 등 철강 기업에 납품하고 있음
-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

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기업임. 최근 환율 리스크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음

- 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식료품 도매업체 F사

- 동사는 식품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외 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최근 환율 급등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임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자사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품의 도착시점에 따라 상이함. 가까운 지역(예: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의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먼 지역(예: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늦게 반영됨
- 최근 정치적 이슈에 따라 국가 신용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기업 차원에서 가시적인 수출입 피해 여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추후 추가적인 환율 급등에 대비하여 결제 대금 시점을 늘리는 등 기업 차원에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환헛지나 국내 달러대금 거래와 같은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중임

□ 철강유통업체 G사

- 동사는 철강유통업체로 주로 조선업계에 납품하고 있음. 국내제품과 중국산을 취급하고 있음.
- 지속적인 환율 상승은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인상분만큼 유통마진 남지 못해 손해 발생, 동사 입장에서는 피해 심각

□ 가스 유통업체 H사

- 동사는 산업용 가스 및 설비 제조 및 판매업체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원자재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한 상황
-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고회율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임. 현재 고회율에 따른 기업 차원의 특별한 대응은 없으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 환율 상승 지속 시 기업 피해가 큰 만큼 조속히 안정되길 바램

□ 식료품 도매업체 I사

- 동사는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외화송금 건이 다수 발생. 수출입 비중 높아 환율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체감하고 있음

□ 신발 제조업체 J사

- 신발 제조업체로 최근 신발 판매 부진에 이어 환율 인상까지 겹쳐 경영애로 심화
- 특히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생산 원가 상승하고 있음

□ 잉크제조업체 K사

- 동사는 잉크 제조업체로 전체 매출에서 수출(미국, EU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해 원·달러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거두고 있는데다, 수출채산성이 호전되고 있음
- 하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환차익이 상쇄되고 있는데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구입비용 부담도 늘고 있어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상승 보다는 환율안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당국의 환율안정 조치를 요망함

□ 철강 유통업체 L사

- 1차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 비중이 높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다만 현재는 선물환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 큰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 존재

□ 철강 유통업체 M사

- 1차 금속제품 도매업 영위 업체로 국내 및 해외 용접봉 제조회사에 금속 분말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제강사를 비롯해 주물, 주강, 특수강 업체에 합금철/비철금속을 공급하고 있음
- 해외의 세계적인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며, 자체 물류창고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환율에 대한 피해는 없음

□ 철강 제조업체 N사

- 코일 수입업체로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수입하고 있음
- 환율로 수입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가격에도 즉각 반영했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임

□ 식료품 도매업체 O사

- 농산물 수입업체로 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폭이 크지만, 현재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하고 있는 상황